

2010년 가을 학기
전 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

메시지 15

사도행전에서
(2)

영도자와, 구주와, 사람의 아들

성경: 행 5:31, 7:55-56

- I.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그분의 오른편에 높이 올리시어 영도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다—행 5:31.
- A. ‘영도자’는 헬라어로 ‘창시자’, ‘기원’, ‘기원자’, ‘최고 지도자’, ‘대장’을 의미한다. 이 단어는 신약에서 오직 네 번 사용되었으며 항상 그리스도를 가리킨다—3:15, 히 2:10, 12:2.
- B. 그분이 영도자이신 것은 그분의 권위에 관계된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이기에 적합한 환경이 이루어지도록, 권위를 가지시고 주권적으로 땅을 다스리신다—행 17:26-27, 요 17:2.
- C. 그리스도는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시다. 그분은 모든 왕의 왕, 모든 주인의 주님이시다—계 1:5, 19:16.
1. 영도자, 통치자로서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여 땅을 다스리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주 예수님께서 적합한 때에 그분의 권위를 사용하시어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내셨다고 믿는다.
 2.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의 주권 안에서 그분께 ‘붙잡혔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그리스도 안에 붙잡혔고, 교회 안에 붙잡혔다.
 3. 그분은 우리가 강권함을 받아 그분을 믿도록 환경을 안배하시는,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시다—눅 15.
- D. 그분은 영도자와 구주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함을 주신다—행 5:31.
1. 회개와 죄들의 용서는 큰 선물이며, 오직 영도자와 구주이신 주 예수님만이 그러한 선물들을 주실 자격이 있으시다. 우리를 붙잡으시고 회개하도록 강권하신 분은 주님이시다—행 11:18, 롬 2:4.
 2. 우리는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 안에 계시는 분의 직권에 의해 구원받았다.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그분과 함께 하늘들에 앉혀졌다. 그리스도께서는 보좌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고, 보좌로 구원하셨다—엡 2:6.
- E. 오늘 온 세상이 주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 그분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단 4:17, 26.
1.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땅 위의 모든 왕들과 왕국들을 포함한 우주를 관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시게 하는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이다—골 1:18.
 2. 그리스도께서 으뜸이 되시려면 하나님께는 그분과 협력하고 동역하는 선택된 백성이 필요하시다. 그리스도가 으뜸이 되시게 하는 목적을 위해 하늘들의 통치 아래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하나님의 선민에게 선이 이루어진다—롬 8:28-29.

3.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통치 아래 모든 것이 우리의 선을 위해 협력한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의 개인적인 우주 안에 있는 일들에서 그러하다.
 4. 하늘들이 우리를 위해 다스리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신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 있다. 하늘들이 다스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다.
 5. 하늘에 속한 다스림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민을 완전하게 하여 그리스도께서 으뜸이 되시고 첫째—중심—와 모든 것—전체—이 되시기 위한 것이다.
- F.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분의 궁극적인 의도를 위해, 그리고 그분의 선민을 돌보기 위해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사 45:15, 왕상 19:9-14, 롬 11:3-5.
1. 에스터서는 이스라엘을 그분의 선민으로 선택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어, 그들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동안, 비밀히 행하시어 그들을 은밀하게 돌보시고 공개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을 계시한다—1:1-2, 4:14.
 2. 우리에게는 우리의 외적인 인간 역사 속에 있는 내재적이고 신성한 역사에 대한 분명한 조망이 필요하다. 전자는 바깥의 껍질이고 후자는 껍질 속의 알맹이와 같다—욥 1:4, 2:28-29, 3:11-21, 2:25-26.
 - a. 하나님께서는 육체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고 움직이시고 일하실 모든 것을 제공하도록 로마 제국을 사용하셨다(눅 2:1-7, 마 22:20-21). 또한 로마 제국이 제공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단(요 18:31-32)과,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의 산출을 위해 모든 육체에게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을 그 영으로 쏟아부으실 때(행 2)와,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확산하는 설비(마 28:19, 행 1:8)이다.
 - b. 인성 안에 있는 삼일 하나님의 신성한 비밀인 신성한 역사는 영원 과거에 영원한 하나님과 그분의 영원한 경륜으로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 인간 생활, 십자가에 못 박히심, 부활로 계속되었다—미 5:2, 딤후 1:4, 엡 1:4-5, 9-11, 요 1:14, 히 2:14, 고전 15:45 하.
 - c. 그리스도의 나타남의 확대로서 교회는 외적인 인간 역사 속에 있는 신성한 역사의 일부이다—딤후 3:15-16.
 - (1) 우리는 다 인간 역사 속에서 태어났지만 신성한 역사 속에서 다시 태어났고 거듭났다—요 3:6.
 - (2) 신성한 역사 속에 새 창조물—새 마음, 새 영, 새 생명, 새 본성, 새 역사, 새 완결을 가진 새 사람—이 있다. 중요한 것은 새 창조물 안에서의 우리의 생활이다—겔 36:26, 갈 6:15, 롬 5:10, 마 24:14.
 - d. 세계 정세는 항상 땅에서의 주님의 움직이심에 대한 지표가 되어왔다.
 - (1) 복음의 확산을 위해 주님은 로마 제국을 준비하셨고, 성경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일을 준비하셨고, 복음의 회복과 성경의 가르침과 합당한 집회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영국을 사용하셨다.
 - (2) 그분의 회복의 확산과 그분의 회복의 마지막 단계—신부를 준비하는 몸의 건축—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주권적으로 준비하시고 보존하시고 축복하셨다—행 17:26-27, 롬 12:4-5, 계 19:7.
 - e.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두 표상—외적인 인간 역사 속의 표상인 적그리스도와 내재적인 신성한 역사 속의 표상이신 그리스도—이 만날 것이다—살후 2:2-8.
 - (1)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군대인 그분의 이기는 이들과 함께 다시 오셔서(욥 3:11)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패배시키실 것이다(계 19:11-21).
 - (2) 신성한 역사 속의 표상이 인간 역사 속의 표상을 패배시킨 후, 천 년 왕국이 올 것이고, 이 왕국이 새 예루살렘—신성한 역사의 궁극적인 완결 단계—으로 완결될 것이다—20:4, 6, 21:10.

II.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스테반이 순교할 때 본 사람의 아들이시다—행 7:55-56, 비교 마 4:4, 요 1:51.

- A. 그리스도는 인성 안의 사람으로서,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마른땅에 시냇물, 황무지에 있는 곧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과 같으시다—사 32:2.
- B. 그리스도는 인성 안의 사람으로서, 보기에 심히 두려운 수정 같은 궁창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분은 그분이 다스리시는 임재의 하늘에 속한 분위기와 상태와 상황으로 우리를 채우기를 갈망하신다—겔 1:22, 26-28.
- C. 그리스도는 인성 안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 우리 속의 생명의 흐름이 증가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측량하시는(우리를 시험하시고 점검하시고 심판하시고 소유하시는) 낯 사람이시다—겔 40:3, 47:1-5.
- D. 그리스도는 인성 안의 사람으로서, 불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걷고 계셨다—단 3:25.
- E. 다니엘서 10 장 4 절부터 19 절에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이심의 중심과 전체이신 뛰어난 그리스도는 인성 안의 사람으로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시어 다니엘의 감상과 위로와 격려와 기대와 안정이 되셨다.
- F.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우주 안에서 가장 높은 곳인 하나님의 오른편에 높이 지신 분이시다—막 16:19, 행 2:33, 5:31, 빌 2:9-11, 시 80:17.
 - 1. 황폐함에서 복원되는 길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다—비교 합 1:1, 요 6:15, 57, 7:37-38, 롬 10:12-13, 계 22:1-2 상.
 - 2.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를 으뜸 삼지 않을 때 교회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게 되었다—렘 2:13, 비교 사 57:20.
 - 3.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들의 삶의 모든 방면에서 그분을 으뜸 삼으로 때 복원과 부흥이 있다—시 80:1, 3, 7, 17-19.
 - 4. 황폐함이라는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를 합당하게 감상하고 높임으로 해결된다—골 1:17-18, 계 2:4.
- G. 인성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등잔대들인 교회들을 돌보고 계신다—계 1:11-13.
 - 1.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은 등잔대들인 교회들을 간검하시어 그들을 보살피시고 기쁘게 하시고 빛나게 하시고 비추게 하신다—출 25:38, 30:7, 비교 속 4:6, 12-14.
 - 2. 그분은 또한 그분의 가슴의 금띠로 상징된, 그분의 사랑에 의해 자극된 에너지인 그분의 신성으로 교회들을 돌보고 계신다.
- H. “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왕국을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왕국은 폐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단 7:13-14.
 - 1. 인성 안에서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끊어지신 후(9:26),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신 후, 승천 안에서 왕국을 받으러 하나님께 가셨다 (눅 19:12, 15, 계 11:15).
 - 2. 인성 안에서 사람의 아들이신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로서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박살내시고(마 21:44) 태산을 이루시어 그분의 왕국 안에서 온 땅을 채우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실 것이다(단 2:34-35, 44-45).